

2016. 5. 3.(화)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2016년 05월 02일 (월)
사회

경기도, '태양의 후예' 촬영지 등 유커 6만 명 유치

중화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태양의 후예' 촬영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중국 관광시장 공략에 나선 경기관광홍보대표단이 6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포천시와 화성시, 도내 관광업계로 구성된 25명의 경기도관광홍보대표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최대 방한객 송출지역인 상하이와 중부 내륙 신성장 시장인 우한지역에서 관광홍보로드쇼를 개최한 결과, 화동(華東)지역 유커 6만 명을 유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오늘) 밝혔다.

관광상품은 태양의 후예 촬영지와 경기도 관광지 2곳 이상을 포함해 개발하게 되며 이번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상하이 3대 여행사별로 각각 유커 2만명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화동지역은 중국 양쯔강 하류유역의 광대한 지역으로 상하이(上海)와 난징(南京), 우시(無錫), 창저우(常州), 쑤저우(蘇州), 항저우(杭州) 등이 유명하다.

경기도관광홍보대표단은 또 금강여행사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9일 DMZ에서 개최되는 평화통일마라톤에 화동지역 마라톤 단체 유치에도 합의했다.

경기도에서 단체 마라톤 관광객 유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이번 로드쇼 후속조치로 태양의 후예 등 신규 콘텐츠 상품화를 통한 중국인 관광객 추가 유치를 위해 상하이와 우한지역 주요 여행사와 언론매체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팸투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

2016년 05월 03일 (화)

30면 전국

경기도, 5~8일 DMZ어린이영화제

경기도와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회는 오는 5~8일 파주출판도시에서 'DMZ Docs 어린이다큐영화제'를 연다. 파주출판도시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단편 다큐멘터리 6편을 상영한다. 상영 일정 및 교육 프로그램 사전 신청은 어린이 책잔치 홈페이지(www.pajubf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4.7 X 5.9 cm

경기일보

2016년 05월 03일 (화)

03면 종합

경기관광공, 5일 임진각평화누리서 'DMZ 평화가족 한마당'

어린이날을 맞아 평화와 생명의 상징 임진각평화누리에서 어린이날 축제가 펼쳐진다.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는 오는 5일 어린이날 뮤지컬, 세계동화나라 포토존 등을 내용으로 '2016 DMZ 평화가족 한마당' 행사를 파주 임진각평화누리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평소 유료로 관람해야 했던 뮤지컬 '피터팬'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약 1시간 동안 피터팬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음악과 율동으로 선사해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이 즐기기에 제격이다. 또 뮤지컬 '맘마미아' 음악과 영화 겨울왕국의 'Let It Go' 등 유명 노래를 소재로 한 또 하나의 뮤지컬 '갈라쇼'가 진행된다. 콘서트 공연, 1사단 군악대 행진도 펼쳐져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모 방송매체에 출연 중

인 탈북미녀 한송이씨가 소개하는 북한물품전시, 대한민국 육군 군장품 전시, 통일의 염원을 담은 송운창 작가의 작품 '분다' 특별전시, 포크송 콘테스트 공연도 선보인다.

체험행사로는 북한음식체험과 경찰관, 소방관, 군인이 되어보는 직업체험 등 20여 종이 마련된다. 특정 장소에서 도장을 찍은 후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진행된다. 행사 본 공연은 오전 11시에 시작되며 입장은 무료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공연과 체험을 풍성히 준비했다"며 "어린이들은 동심을, 어른들은 추억을 느끼는 뜻 깊은 어린이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14.7 X 7.7 cm



지난해 파주 임진각평화누리 일원에서 열린 DMZ 평화가족 한마당 모습.

/경기관광공사 제공

어린이날, 분단의 현장에서 '아픔'을 축제로 승화

5일 파주 임진각평화누리에서 '2016 DMZ 평화가족 한마당'

오는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평화와 생명의 상징 임진각평화누리에서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5일 파주 임진각평화누리에서 '2016 DMZ 평화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유일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인 DMZ를 활용, 안보체험 행사를 통해 어린이와 함께한 가족형 방문객에게 안보의식을 되새기고 DMZ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취지다.

행사는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게 된다.

우선 예화종합예술단의 뮤지컬 '피터팬'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1시간여 동안 피터팬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음악과 율동으로 선사, 어린이는 물

뮤지컬 '피터팬' 등 행사 다채 북한관련 물품·음식도 선보여

군장품 등 안보체험행사도 열려 소방관 등 20여종 직업체험장도

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길수 있게 된다.

또 뮤지컬 '맘마미아' 음악과 영화 겨울왕국의 'Let It Go' 등 유명 노래를 소재로 한 또 하나의 뮤지컬 '갈라쇼'도 진행된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북한 관련 물품도 보고, 음식도 맛볼 수 있게 된다.

북한물품전시는 종편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중인 탈북미녀 한송이씨가 소개를 맡는다.

안보체험 행사인 만큼 대한민국 육군 군장품 전시, 통일의 염원을 담은 송운창 작가의 작품 '분단' 특별전시, 포크송 콘테스트 공연 등도 선보이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이 되어보는 20여종의 직업체험장도 마련되며 특정 장소에서 도장을 찍은 후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진행된다.

행사 본 공연은 오전 11시에 시작되며 입장은 무료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공연과 체험을 풍성히 준비했다"며 "어린이들은 동심을, 어른들은 추억을 느끼는 뜻 깊은 어린이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17.9 X 20.4 cm

임진각평화누리서 5일 '2016 DMZ 평화가족 한마당'

뮤지컬 '피터팬' 무료 관람, 1사단 군악대 행진, 육군군장 전시 등 다양한 행사 펼쳐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5일 어린이날 평화와 생명의 상징인 파주 임진각평화누리에서 '2016 DMZ 평화가족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뮤지컬 '피터팬'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1시간 동안 피터팬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음악과 율동으로 즐길 수 있다. 뮤지컬 '맘미아' 음악과 영화 겨울왕국의 'Let It Go' 등 유명 노래를 소재로 한 또 하나의 뮤지컬 '갈라쇼'가 진행된다. 콘서트 공연, 1사단 군악대 행진도 펼쳐져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채널A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중인 탈북미녀 한송이씨가 북한물품을 소개하고, 대한민국 육군 군장품 전시, 통일의 염원을 담은 송운창 작가의 작품 '분다' 특별전, 포크송 콘테스트 공연도 선보인다.

북한음식체험과 경찰관, 소방관, 군인이 되어보는 직업체험 등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특정 장소에서 도장을 찍은 뒤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진행된다.

행사 본 공연은 오전 11시에 시작한다. 입장은 무료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5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공연과 체험을 풍성히 준비했다"며 "어린이들은 동심을, 어른들은 추억을 느끼는 뜻 깊은 어린이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hk102010@

14.4 X 11.3 cm